

# 영암군, 문화예술·활력 기반 조성 '신도심 프로젝트' 착수

### 교동지구 도시개발 착공...19만㎡ 부지 주거·교육·문화·상업 복합기능 문예회관·공공도서관 등 조성...2026년 6월 준공 후 7월 토지 분양

영암군이 문화예술과 교육, 지역활력이 어우러진 '영암형 도시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영암군은 지난 26일 영암읍 교동리에서 우승희 군수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은 영암실내체육관 맞은편 영암읍 교동리 18만 9602㎡ 부지에 주거·교육·문화·상업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심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구호로 출범한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 도시개발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은 영암문화예술회관과 영암

공공도서관 건립,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 191억 원을 투입해 교동지구에 들어설 영암공공도서관은 월출산국립공원을 무대로 국내 유일의 기후·생태·환경 교육 거점도서관으로 건립된다. 영암군은 책과 사람, 자연과 생태가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가꿔가는 복합문화교육 공간으로 도서관을 꾸밀 계획이다.

이 곳에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영암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할 영암문화예술회관도 454억 원을 들여 건립된다.

영암문화예술회관은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 140석 규모의 소극장을 갖춘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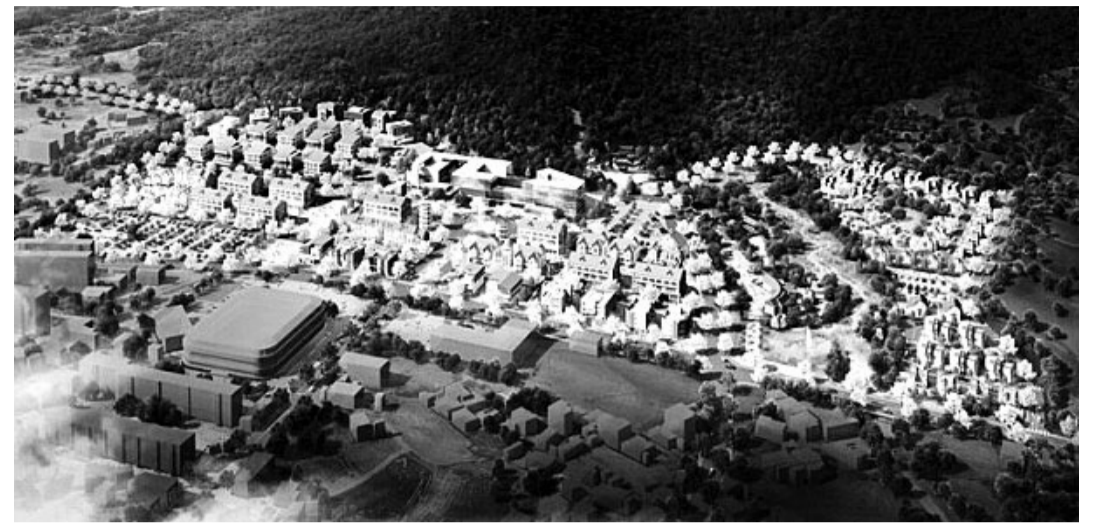
또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 교동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내일을 주민 손으로 열어가길 산실로 지역 활력타운이 조성된다. 여기에는 주거단지외 함께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이 조성돼 주민공동체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사용된다.

영암군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해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교동지구 도시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농촌이 직면한 저출산, 청년인구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취약한 정주여건과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모델'을 세운다는 전략이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6월에 준공해 7월 토지 분양에 들어가며, 영암공공도서관은 2026년 12월, 문화예술회관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가꿔갈 도시를 건설하는 민선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 조감도.

8기 혁신 영암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영암형 도시 모델'을 교동지구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영암군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창단

### 조훈현 국수 배출 '바둑 분향' 한해원 감독·선수 5명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출전

영암군이 조훈현 국수를 배출한 '바둑 분향'의 명성을 이어갈 바둑 팀 '마한의 심장 영암'을 창단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한국기원의 주요 바둑 기전 중 하나로 28일부터 진행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지역 이름을 걸출전하기 위해 바둑팀을 발족했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한해원 감독이 지휘한다. 한 감독은 '2021-2022 KB 바둑리그'에서 서울 'YOU WHO' 팀을 이끈 경험이 있다.

선수는 1지명 안성준 9단, 2지명 설현준 8단, 3지명 최철환 9단, 4지명 박종훈 7단, 5지명 엄동진 2단 등으로 구성됐다.

후보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대만기원의 쉬하오홍 9단이 이름을 올려 국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조훈현(오른쪽 여섯번째) 국수와 우승희(오른쪽 일곱번째) 영암군수 등이 바둑팀 '마한의 심장 영암' 창단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이번 선수들은 2023-2024년 리그까지 계약이다. 바둑 기전 중 하나로 오는 28일부터 진행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 지역 이름을 걸고 출전한다.

조훈현 국수는 팀 자문역할을 맡는다. '마한의 심장 영암' 팀은 오는 한국기원의 주요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나눔의 섬' 거듭나는 천사의 섬 신안군, 나눔 리더 33명 단체 가입식

### 공동모금회 100만원 이상 기부 총 56명...전남서 최다 배출

천사의 섬 신안군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6일 신안군청 1004회의실에서 새롭게 가입한 나눔리더 33명과 함께 두 번째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가졌다.

'나눔리더'는 공동모금회 나눔리더 기부 프로그램으로, 100만원 이상 기부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이날 나눔리더 가입식은 신안 나눔리더 1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나눔리더 23명의 단체 가입식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이번에 33명이 신안지역 공동체 만들기 동참하면서 신안군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나눔리더 56인을 배출한 나눔의 섬으로 거듭났다.

특히 이번 신안 나눔리더 단체 가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로 신안군 주민들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와 5개 지역 협동조합 13명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지난 26일 나눔리더 가입식 후 나눔리더 33명과 함께 인증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또 20명의 신안군 관계·사회기관 단체장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해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두 번째 단체 가입식은 신안군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적극 장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tee@kwangju.co.kr

##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해 추가 모집

### 청약 접수 다음달 5일~9일

영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광단주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 예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약 접수는 내년 1월5일부터 9일까지 청약 누리집(apply.lh.or.kr)과 모바일 앱(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같은 달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광군청 별관을 찾아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영광단주 행복주택 모집 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나이는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변경했다.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하다.

고령자 등 주거 약자는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000원에 월 임대료 월 14만1000원가량을 부담한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원에 임대료 월 23만6000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이곳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공공세탁실, 작은도서관, 협동카페,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누리집 '청약-임대주택-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해남군 기관표창 90건 '역대 최고'

### ESG 평가대상·농정업무 대상 등 군정 전문분야 두각

해남군이 올해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90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해남군의 기관평가 수상은 매년 증가해 민선7기 직전인 2017년 36건에 비해 2.5배 이상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올해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 울해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산업경제대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대상,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환경부장관상 등 군정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전남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하며 공평·공정·공개의 군정 운영도 돋보인 한 해였다.

해남군이 역대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행정의 성과도 지방자치단체 대상 등을 수상하며 해남형 ESG 확산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역대 최다 기관 표창 수상은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일군 성과"라며 "내년에도 전 군민이 합심해 해남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씨월드고속 이혁영 회장 내향선사 '올해의 인물'

### 항로 개척·선박 신조 등 고객 서비스 개선 호평

씨월드고속해리(주) 이혁영(사진) 회장이 한국해운신문 주최하는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내향선사 부문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IMF 외환위기 때 카페리를 인수해 제주 항로에 대형 카페리를 투입,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연안 여객선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현재 총 5척의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현대화·대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항로 개척과 선박 신조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과감한 도전과 굳은 신념으로 제주항 배길을 활성화시킨 공로가 높게 평가 됐다.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으로 여객선 이용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회복시켰으며, 연안여객선사 최초로 운항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면서 선박 안전관리의 혁

신적인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 회장은 "고객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 여행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며 더 할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씨월드고속해리는 또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종합 우수선사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진도-제주 90분을 실현한 산타모카호 성공적 취항으로 카페리 분야 우수선박으로 뽐내기도 했다.

씨월드고속해리는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됐던 신조선 비윤드 트리스트호를 매입, 내년 2월 말부터 '윈데뉴비아2호'라는 선명호로 목포-제주항로에 투입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무안 전·월세 계약 무료 상담받으세요

### 전속 공인중개사 상주...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5시

무안군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근절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상담 방식은 전화, 누리집, 방문 상담 등 다양하다. 전속 공인중개사가 일주일간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해 전화·방문 상담을 펼친다.

무안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안심거래 명패'도 배부하고 있다.

안심거래 명패는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

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안군은 지도·단속한 뒤 명패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자와 재산권 확인 ▲매매물건 현장 확인 ▲계약서와 관련된 사항 확인(보증금·중도금·잔금 등)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확인 ▲대리인 확인(위임장)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완도 해양치유센터 다음달까지 50% 할인

### 내년 1월1일 해맞이 행사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변 인근에 있는 해양치유센터·해양문화치유센터가 시범 운영을 마쳤다.

완도군은 최근 해양치유센터 개관(11월24일)을 기념해 내년 1월31일까지 해양치유·해양문화치유센터 이용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치유 수업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368회 운영해 2만4715명이 참여했다. 해양문화치유는 지난해부터 올해

까지 총 137회 운영, 5270명이 참여했다.

해양치유센터에서는 신지 명사십리의 청정 환경과 해양치유를 활용해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싱잉 불' 명상, 차(茶) 명상, 해변 운동 등을 진행한다.

한편 해양치유센터 인근 명사십리 행사장에서는 센터 개관을 기념해 1월1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맞이 행사'를 연다.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풍물패 길놀이, 팼짜라·곡악 공연, 소망 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